

생활물가 폭등... 서민가계 비상

농축수산물에서부터 밀가루·화장지 등 생필품, 공공요금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생활물가가 줄줄이 폭등하면서 서민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들 생활물가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는데다 충남 태안지역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수산물 값까지 들쭉거리며 생활고를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전남농협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작황부진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11월 농축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4.5% 올랐다. 이중 ▲배추 213.3% ▲양상추 171.4% ▲무 114.5% ▲파 89.7% ▲꽃고추 85.1% 급등했다.

바지락·고막 등 노량진수산물시장의 수산물도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이후 20~30% 급등, 장기적으로 광주·전남 지역 유통 수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김장비 30%·수산물 20~30% 밀가루 값 34% ↑
공공 요금에 원자재價도 올라... 내년 경기 회복

농작물 수입물가도 전년 동월보다 26.8% 오르면서 밀가루 제품의 출고 가격을 24~34% 밀어올렸다. 이에 따라 과자류 가격은 조만간 15~20% 인상될 예정이며, 빙과류도 30~35% 상승조정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밀가루 가격이 오를 경우 보통 2~3개월 뒤 가공식품 가격이 뒤따라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이나 내년초 인상을 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서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국내 공업제품과 공공요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생활을 옥죄고 있다.

11월 공업제품은 전년 동월대비 전

반적으로 4.1% 상승한 가운데 ▲금반지 27.4% ▲등유 17.9% ▲휘발유 13.4%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공공서비스요금도 ▲도시가스 10.7% ▲전철료 10.9% 상승했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료 9.0% ▲납입금(사립대) 7.3% 등으로 집계돼 전체적으로 3.2% 올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가동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양등에서 시작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내 원재료와 중간재 물가는 작년 동월보다 12.0% 상승해 지난 2004년 11월(12.9%)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동원, 아주택배 인수

동원그룹은 18일 아주택배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주택배는 일일 처리물량이 7만5천박스를 작년 매출 474억원, 영업이익 34억원 적자, 경상이익 1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인수는 밝히지 않았다. 동원그룹은 지난 5월 동원택배(옛 KT로지스택배)를 인수하며 택배사업에 진출, 하루평균 5만5천박스를 처리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



중소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제12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이 객석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체국 사정 허위전화 주의보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전화를 걸어 우체국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묻는 보이싱 피싱(Voice Fishing) 사기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을 사칭하는 ARS 전화 사례로는 ▲택배가 도착했으니 전화 번호 몇 번을 눌러라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 등의 ARS 안내문이 나온 후 9번을 누르면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 집 주소 등 자세한 물어본 다음 전화를 끊는 경우다.

/김지윤기자 dok2000@

광주 내년 상반기 고용 사정 '맑음'

수출·생산 증가세 힘입어 제조업 고용전망 '103'

2008년 1·4분기 광주지역 제조업의 고용사정이 지난 분기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1·4분기 고용전망지수(EPI·Employment Projection Index, 기준치=100)'는 '103'으로, 지역기업들의 고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 환율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나, 지역내 수출·산업생산 증가세 지속, 취업시즌 도래 등의 요인이 반영되면서 고용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분기에 비해 고용증가를 예상한 업체는 16.3%(전분기 20.0%)인 반면 감소를 예상한 업체는 6.7%(전

분기 13.7%)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운수장비업종(115)', '1차 금속 및 조립금속(113)', '기계(111)'업종에서는 고용이 전 분기에 비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전자업종(94)', '화학·고무·플라스틱업종(91)', '음식료품업종(89)', '섬유·의복업종(80)' 등은 지난 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출판·인쇄업종(100)', '비금속광물업종(100)' 등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농협 중앙회장 출사표 던진 김 병 원 남평농협 조합장

“농·축산물 유통 혁신 통해 위기의 농촌·농업 구하겠다”



“쌀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축산물 브랜드 특화판매장을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개방시대에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농업을 살려내겠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민선 4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김병원(54) 남평농협 조합장은 “경쟁력을 갖춘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겠다”며 18일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김 조합장 외에 최원병 광주 안강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가야농협 조합장, 박성직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 신영철 경기 구리농협 조합장 등 5명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서 놀라운 수완을 발휘한 김 조합장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조합장은 또 “중앙회를 도

시·농촌·도농복합·도시형 등으로 구분, ‘유형별 맞춤형계획’을 수립해 회원조합의 자립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신설, 조합원 신용사업 이용제한 철폐 등으로 농협의 상호금융 경쟁력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6년근 인사계약재배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능력과 계약재배를 추진하며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도시조합 유통시설자금으로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조합장은 ▲관리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중앙회 조직개편 ▲중앙회 사업기능의 시·도지역분부 이양 ▲연임제한 폐지 등을 통한 단위조합장 위상 강화 ▲농업인 교육문화센터 신설 ▲권역별 요양병원과 실버타운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30년 농협인의 외길을 걸어온 김 조합장은 9년 동안 남평농협을 이끌어오면서 지난해 전국 지역농협 가운데 최고의 1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또 계약재배, 체계적인 평심등우기 등을 통해 ‘심심마을’ 친환경 쌀 등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어내 올해 철따산연합장을 받았다.

김 조합장은 전남대 경영대학원과 농업개발대학원 석사를 거쳐 현재 전남대 농업경제학 박사과정에서 재학중인 학구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조선업계 내년 300억불 수출

한국조선협회 전망

올해 최대의 수주호황을 누린 국내 조선업계가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실제 수출액 300억달러의 금자탑을 쌓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21억달러 어치를 수출한 국내 조선업체들은 올해 270억 달러(예상), 내

년에는 3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빅3 업체를 비롯해 대부분의 조선업체들이 이미 4년치 물량을 확보해놓은 상태”라며 “이 같은 수주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수출 300억불 달성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조선협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국내 조선업계는 1977년 5억3천만 달러의 선박을 수출한데 이어 2002년 109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5년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2006년 200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4년만에 새 기록을 세웠으며, 다시 2년만에 ‘300억 달러 시대’에 접어들 전망이다.

동시에 국내 조선업체들이 4년치의 일감을 미리 확보해놓은 만큼 향후 몇년간 매출 및 수출액은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조선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이통 4사 청소년 요금 불법운용

통신위, 12억 과징금 부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4개사의 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불법운용 관련 총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갑)는 17일 제147차 위원회를 열어 청소년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8억9천만원, KTF가 2억원, LG텔레콤이 1억5천만원, KT가 5천만원이다.

통신위는 이들 통신 4개사가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가입 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가입시키거나 1인 2회선 이상 가입시킨 행위, 무선

인터넷 등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행위 등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들이 2007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 시 적용할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전송요금공부비 및 전송기능공부비자산의 역무별 배분기준을 회계분리기준에 맞게 고치는 등 총 18개 사항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연합뉴스



redcap



무안-후쿠오카 직항 전세기

광주점
222-3700

가족여행, 온천탐방, 하우스텐보스

2008년 1월 8일~20일 6회 운항

1월 8일(수) 1박2일	₩229,000
1월 9일(목) 1박2일	₩249,000
1월 10일(금) 1박	₩149,000
1월 11일(토) 1박3일	₩389,000
1월 12일(일) 1박	₩299,000
1월 13일(월) 1박	₩389,000
1월 14일(화) 1박	₩389,000
1월 15일(수) 1박	₩389,000
1월 16일(목) 1박	₩389,000
1월 17일(금) 1박	₩389,000
1월 18일(토) 1박	₩389,000
1월 19일(일) 1박	₩389,000
1월 20일(월) 1박	₩389,000

